

특집

2013년 건설경기 전망

기능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임금 상승세 지속될 듯

- 숙련 11.7만원 · 비숙련 8.4만원 수준 전망, 외국 인력 실질 규모가 변수로 -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올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급증

20 12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66.9조원, 하반기에는 0.7% 증가한 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의 흐름과 달리 건설업 취업자 수는 8월을 제외하고는 2011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4월까지 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은 해외건설 수요에 대비한 기술관리 인력의 고용 증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상대적으로 기능인력 수요가 많은 소규모 건축의 증가, 불법 취업 외국 인력에 대한 단속을 통한 내국 인력의 취업 증가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올 상반기의 취업자 수 급증을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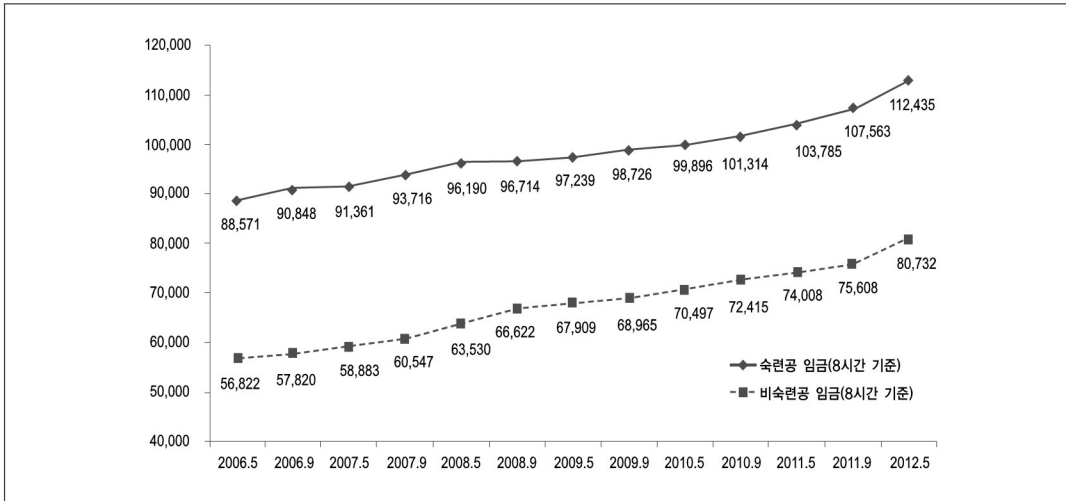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항목	시기	2010년	2011년	2012년								
				1	2	3	4	5	6	7	8	9
취 업 자	전(全) 산업	23,829	24,244	23,732	23,783	24,265	24,758	25,133	25,117	25,106	24,859	25,003
	건설업	1,753	1,751	1,719	1,699	1,744	1,787	1,819	1,815	1,781	1,753	1,781
	건설업 비중	7.4	7.2	7.2	7.1	7.2	7.2	7.2	7.2	7.1	7.1	7.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	-0.1	5.3	4.7	4.4	3.0	1.8	0.8	1.5	-2.0	3.4
건설 투자 (2005년 불변가격)		153.4	145.8	66.9(상반기)						79.0(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7	-5.0	-0.6						0.7		

주 : 2012년 하반기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건설 기능인력의 숙련도별 임금 추이(하루 8시간 기준)



주 : 1) 숙련공 임금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비계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배관공, 도장공, 철근공 등 11개 직종의 평균 임금임.
 2) 비숙련공 임금은 보통인부의 임금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각 연도.

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저 7.1%와 최고 7.2% 사이를 오가고 있어 2012년 연간 평균 비중은 2010년의 7.4%에 못 미치고 전년도 수준인 7.2% 정도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하루 8시간 환산 임금)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건설 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직종별 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 조사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까지 감안한 현장의 체감 임금 수준과 다를 수 있다.

2012년 5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인부의 임금은 8만 73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

의 평균 임금은 11만 2,435원으로 8.3%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 5월 현재 일일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3만 6,740원)이고, 그 뒤를 타일공(12만 603원), 철근공(11만 8,389원), 조적공(11만 7,597원), 건축목공(11만 3,281원), 미장공(11만 2,225원) 등이 있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방수공의 경우 14.7%가 올라 1만 1,357원 상승했고, 조적공의 경우 12.3%가 올라 1만 2,843원이 상승했으며, 비계공의 경우 10.3%가 올라 1만 2,768원 상승하였다. 전년 동기에 비해 임금이 하락한 직종은 없다.

내년도 기능 인력 수급 불균형 이룰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 국내 건설투자는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생산물

특집 2013년 건설경기 전망

2013년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 천명, 원)

구분	2011년			2012년(e)			2013년(e)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건설투자	67.3	78.5	145.8	66.9	79.0	145.9	148.3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1,230	1,238	1,234	1,252	1,306	1,279	1,288
	공급	1,156	1,133	1,145	1,178	1,175	1,177	1,170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인력	103,785	107,563	105,674	112,435	114,249	113,342	116,629
	비숙련인력	74,008	75,608	74,808	80,732	81,226	80,979	83,975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7.1	-3.0	-5.0	-0.6	0.7	0.1	1.6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3.9	-0.7	-2.3	1.8	5.5	3.7	0.7
	공급	-0.7	0.0	-0.4	1.9	3.7	2.8	-0.6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인력	3.9	6.2	5.0	8.3	6.2	7.3	2.9
	비숙련인력	5.0	4.4	4.7	9.1	7.4	8.2	3.7

- 주 : 1) 건설 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 2) 건설 기능인력 수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 3)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 4)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의 파생 수요인 건설 기능인력 수요는 2012년에 비해 약 0.7% 증가한 128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의 심화로 공급은 0.6% 줄어 117만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의 증가는 타 산업에서 이직할 실업자들을 건설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도 있으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릴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불법 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2~3%대 상승 전망

2013년에 기능 인력 수요가 약간 증가하는 반면, 국내 기능 인력 공급은 줄어 임금 수준(하루 8시간 기준)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 임금은 전년 대비 2.9% 증가해 11만 6,629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

우 전년 대비 3.7% 증가해 8만 3,975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내국인 고령화에 따라 공급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인력 수요의 증가율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국 인력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취업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것은 방문취업 동포(H-2)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허용 인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건설업 취업등록 및 취업교육을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정부는 2013년도 건설업취업등록제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 그리고 고용허가제는 1,600명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불법 취업자가 존재(2011년 기준 약 12만명)해 건설 기능인력 수급과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